

# 2016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국어 영역 •

### 정답

1	⑤	2	④	3	②	4	⑤	5	②
6	⑤	7	②	8	③	9	③	10	④
11	②	12	④	13	①	14	④	15	⑤
16	①	17	④	18	⑤	19	①	20	④
21	①	22	⑤	23	③	24	③	25	⑤
26	①	27	①	28	②	29	②	30	③
31	①	32	③	33	④	34	④	35	②
36	②	37	③	38	④	39	⑤	40	①
41	④	42	⑤	43	③	44	⑤	45	⑤

### 해설

#### [1~5] 화법

#####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E]에서 진행자는 연구자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요약하고 있다. 연구가는 경험에 비추어 궁금한 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입춘과 관련된 속담을 설명하기 위해 진행자에게 속담을 들어 봤는지 확인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연구가는 입춘, 하지, 동지를 예로 들어 절기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다.

##### 2.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내용 추론하기

소서는 모심기에 늦은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심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 '새 각시', '지나가는 행인'도 때늦은 모심기를 돕는다. 이것은 모심기가 모두 협동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새 각시', '행인'의 구체적 일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널리 알리려는 의도도 없다.

② 비유적인 표현은 없다. 소서는 모심기에 늦은 시기이므로 소서에 맞춰 모를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할 수 없다.

③ '새 각시', '행인'이 전문 일꾼이라 할 수 없고, 이들이 모심기에 늦은 소서에 제 역할을 해야 농사가 잘 된다는 정보는 파악할 수 없다.

⑤ '새 각시', '행인'이 모심는 때를 놓쳤다고 할 수 없고, 이들을 풍자한다고 볼 수도 없다.

##### 3.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 파악하기

'찬성 1'은 입론에서 어떤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았으며, 주장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찬성 1'은 법적인 문제에 관해 전문가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③ '찬성 1'은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할 때 구체적인 수치와 '□□ 신문사'라는 출처를 함께 제시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④ '반대 1'은 노 키즈 존 도입이 결국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현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거론하여 상대를 반박하였다.

⑤ '반대 1'은 식당에서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잘못되었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여 상대 발언 일부를 수용하였다. 이렇게 입론을 시작한 뒤 자기주장을 펼치고 있다.

##### 4. [출제의도] 쟁점을 통해 토론 내용 분석하기

'반대 1'은 상대측의 해결 방안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을 외국에서 실시한 여러 방안과 비교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② '찬성 1'의 입론에서 찾을 수 있다. ③ '반대 2'의 교차 질문과 '반대 1'의 입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찬성 측의 발언에서 인력, 예산 문제를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5. [출제의도] 반박할 내용 마련하기

반대 측은 아이를 동반한 고객들의 공간과 일반 고객의 공간을 분리하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매장이 좁은 소규모 업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ㄱ'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또한 '반대 1'의 입론에서 '소란한 아이를 방치하는 몰지각한 부모는 일부일 뿐'이라고 하여 사소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ㄷ'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오답풀이]** '반대 1'의 입론을 통해 노 키즈 존 도입을 막아야 하는 근거와 정착 가능성이 낮다고 본 근거를 제시하였으므로 'ㄴ'과 같이 반박할 수는 없다. 또한 'ㄹ'은 반대 측에서 찬성 측에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가]에 들어갈 교차 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6~10] 작문

##### 6. [출제의도] 작문 계획 검토하기

작문 계획 중 '비만의 역설'을 반박하는 사례는 초고에 다루지 않았다.

**[오답풀이]** 비판 규정의 척도는 1문단 도입에 제시되어 있고(㉠), 비판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1문단 후반부에서 WHO의 사례로 소개하였다(㉡).

'비만의 역설'에 대한 개념은 2문단 세 번째 문장에서 다루었고(㉢), 비판과 관련된 사망 위험률도 2문단 후반부에서 다루었다(㉣).

3문단은 최근에 발표된 또 다른 '비만의 역설'의 사례로서, 비판과 노인 건강의 상관관계를 다룬 것이다.

##### 7. [출제의도] 작문 계획에 따라 글쓰기

[가]에 들어갈 내용은 [A]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②의 첫 문장은 '비만의 역설'에 담긴 의의를 언급한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비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당부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④에는 인식 전환을 당부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③, ⑤에는 '비만의 역설'에 담긴 의의를 찾을 수 없다.

##### 8. [출제의도] 잘못된 표현 고쳐 쓰기

㉠ '미치다'는 '어떤 대상에 힘이나 작용이 가해지다'는 뜻이므로, 그 쓰임이 적절하다. '끼지다'는 '미치다'와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오답풀이]** ① ㉡ '비만'은 이어지는 문장의 의미로 볼 때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비만이'로 고쳐야 한다.

② ㉢ '그래서'는 앞 문단 내용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만의 역설'이라는 새로운 화제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그러나'로 고쳐야 한다. 다만 앞 문단의 내용이 비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고 2문단의 내용이 비만에 대한 긍정적인 것이므로, '그러나' 또는 '하지만' 등으로 고쳐도 무방하다.

④ ㉣ '만들어서'는 주체인 '면역세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동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

⑤ ㉤ '보호하는'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몸을'을 추가해야 한다.

##### 9. [출제의도] 작문 내용 생성하기

'수산물 시장'은 변함없이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다.

**[오답풀이]** ①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해물탕'을 준비한다는 내용으로 볼 때, '해물탕'에 어머니를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어머니가 평생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재봉질을 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재봉질에 어머니의 고단

한 삶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맨발'이라는 시를 통해 어머니의 발을 떠올리고 있다.

⑤ '어머니의 발'을 떠올리면서 '나'는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작문 내용 표현하기

속살을 내민 조개는 어머니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다짐과 관련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효도하는 자식으로 거듭나야겠다는 다짐은 드러나지만, 비유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축 처진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다짐은 드러나지만, '힘없는 조개'는 어머니가 아니라 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어머니처럼'은 비유적 표현이 아니며, 선지의 내용이 글의 흐름에 맞는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

⑤ 앞으로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는 자식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은 드러나지만, 비유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 [11~15] 문법

##### 11. [출제의도] 국어사전 정보 완성하기

용례의 '벌써', '~ㄴ지 오래', '이미' 등의 시간 표시나 '-있-'의 선어말어미를 통해 그르다<sup>01</sup>이 [II]-「1」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주로 과거 시제에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2. [출제의도] 단어의 품사 분류하기

'아홉'은 수사이고, '학생'은 명사이므로 서로 다른 품사이다.

**[오답풀이]** ① '착실한'과 '이다'는 활용하여 그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③ '은'은 보조사이고,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둘 다 관계언이다.

⑤ '매우'는 부사이고, '착실한'은 형용사이다.

##### 13. [출제의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분석하기

연결 어미 '-으면'은 앞의 절과 뒤의 절이 조건의 의미 관계임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② '-(으)려고'는 의도,

③ '-어도'는 양보,

④ '-는데'는 배경,

⑤ '-어서'는 인과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 14. [출제의도] 음운의 축약 및 탈락 이해하기

'크- + -어서 → 커서'의 경우 어간의 모음 '-ㅓ'가 탈락한 것이다(㉠, ㉡).

**[오답풀이]** ① '싫다[실타]'는 'ㅎ'과 'ㄷ'이 만나 'ㅌ'이 되는 축약 현상이 일어난 경우이다(㉢, ㉣).

② '좋아요[조아요]'는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 경우이다(㉠, ㉡).

③ '울- + -는 → 우는'은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 경우이다(㉠, ㉡).

⑤ '나누- + -었다 → 나눴다'는 'ㅈ'와 'ㄱ'이 만나 'ㄱ'이 되는 축약 현상이 일어난 경우이다(㉢, ㉣).

##### 15. [출제의도] 담화 표지의 기능 이해하기

청유형 종결 어미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제안하거나(㉠ 함께 공부하자), 말하는 이의 행동 수행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나도 한마디 하자), 말 듣는 이의 행동 수행을 촉구하기도 한다(㉢ 표 좀 빨리 읽시다). 주어진 담화에서는 '아들'에게 '심호흡'해 볼 것을 권하는 것이지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16~19] 인문

<출전> 「이천 년을 이어져 온 논쟁」(재구성)

개관: 이 글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맹자, 순자, 한비자의 입장을 소개하고, 그 입장들을 비교하고 있다. 맹자는 선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과욕'과 '호연지기'를 통해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선한 본성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순자는 인간이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므로, 외적 규범인 '예'를 통해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비자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이익 추구의 원천으로 보았고, 인간의 욕망을 법으로 다스려야 함을 제시하였다.

16.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인간의 욕망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맹자, 순자, 한비자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을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비교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②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욕망의 유형을 분류하지 않았다.  
③ 욕망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있으나, 그것의 현대적 의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④ 욕망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욕망 이론의 타당성도 따지지 않았다.  
⑤ 욕망을 조절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은 밝히지 않았다.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순자는 맹자가 제시한 개인의 수양만으로는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힘들기에, 외적 규범인 '예'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순자의 입장은 맹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금욕주의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순자는 맹자가 제시한 '과욕'과 '호연지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③ 순자는 인간의 욕망을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나누지 않았다.  
⑤ 맹자와 순자 모두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다.

18.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맹자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가려져 있는 선한 본성을 '과욕'과 '호연지기'를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보기>에 적용하면, A 음식점의 수익까지 욕심을 내는 B 음식점 주인의 욕망은 마음의 수양을 통해 절제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손님들의 도덕성은 지문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② B 음식점 주인의 욕망을 이기적인 본성으로 보고, 사회적인 제재를 주장한 사람은 순자이다.  
③ 본성 회복의 의무가 A 음식점 주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기에, B 음식점 주인의 마음이 나쁜 본성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은 알맞지 않다.

19. [출제의도] 글의 정보 파악하기

순자와 한비자 모두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것은 인정하고 있다(ㄱ). 그리고 순자는 '예'를 통해, 한비자는 '법'을 통해 백성의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ㄴ).  
[오답풀이] 순자는 사회적 규범인 '예'로 인간의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본 데 반해, 한비자는 그렇지 않다(ㄷ). 한비자만 인간의 욕망을 부국강병과 부귀영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보았다(ㄹ).

[20~22] 기술

<출전> 「가로 경관 디자인」(재구성)

개관: 이 글은 도시 경관을 대표하는 가로 경관의 시각적 효과와 관련된 세 가지 척도를 소개하고 있다.

도로 폭을 중심으로, 도로변 건축물 높이와의 관계를 따진 D/H, 도로 길이와의 관계를 따진 D/L, 도로에 접한 건물의 정면 폭과의 관계를 따진 W/D 등이 그 척도이다.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가로 경관의 시각적 효과와 관련된 세 가지 척도를 소개하고 있으나, 그 척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밝힌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③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도로변 건물의 높이, 정면 폭이 가로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2문단과 4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D/L은 '도로 폭/도로 길이'이므로 1/60인 가로는 1/20인 가로보다 도로 폭에 비해 도로 길이가 길다. 이런 가로는 ㉠의 성격이 더 강하다.  
[오답풀이] ④ 정리된 느낌을 주는 제한 길이는 ㉠이 2km, ㉡이 1km이므로 ㉠보다 ㉡이 더 짧다.

22.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도로의 폭은 같으므로, '도로 폭/도로변 건물 높이'인 D/H는 도로변 건물 높이가 낮을수록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므로 D/H 2.0인 B는 1.2인 C보다 낮은 건물들이 많은 가로일 것이다.  
[오답풀이] ① A(0.9)와 같이 '정면 폭/도로 폭'인 W/D가 1보다 작으면, 정면 폭이 도로 폭보다 작은 건물들이 많은 가로일 것이다.  
② D/H가 1일 때 도로 폭과 도로변 건물의 높이가 같다. B는 D/H가 2.0이므로 건물 높이에 비해 도로 폭이 넓은 가로일 것이다.  
③ D/H가 1보다 작으면 폐쇄성이 강한 공간, 1보다 크면 개방성이 강한 공간이므로, C(1.2)는 폐쇄성보다 개방성이 강한 가로일 것이다.  
④ W/D가 1보다 작으면 활기찬 느낌이 드는 가로이므로, A(0.9)는 B(1.4)보다 활기가 넘치는 가로일 것이다.

[23~26] 과학

<출전> 「뇌 안의 내비게이션」(재구성)

개관: 이 글은 사람들이 길을 찾는 원리를 두 가지 신경 세포로 설명하고 있다. 위치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 세포에는 오프가 해마에서 발견한 '장소 세포', 모세르 부부가 내후각피질에서 발견한 '격자 세포'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내후각피질의 위치 정보와 해마의 위치 정보가 완전하게 결합하면, 특정 좌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상을 통해 길을 쉽게 찾을 수도 있다. 그런데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서 내후각피질과 해마의 위치 정보가 불완전하게 결합되면 길치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23. [출제의도] 서술 방식 이해하기

이 글은 특정 용어 '장소 세포(2문단)', '격자 세포(3문단)'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길을 찾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모세르 부부는 내후각피질에서 위치 인식과 관련된 또 다른 신경 세포, 격자 세포를 발견했다.(3문단)  
[오답풀이] ①은 1문단,  
②, ④는 2문단,  
⑤는 5문단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2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CA1이 정상이면 CA3이 손상되어도 길을 찾을 수 있다(4문단). 그 이유는 회상 능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위치 단서를 이용하면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CA3만 손상되고 CA1은 정상인 쥐이다. ㉠이 ㉡처럼 발판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위치 단서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 단서마저 없다면 ㉠은 길을 찾을 수 없으므로, CA1과 CA3 사이의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6.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의 '생기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다'를 의미한다.  
[오답풀이] ②, ④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  
③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  
⑤ 자기의 소유가 아니던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다.

[27~30] 사회

<출전> 「상속세와 증여세」(재구성)

개관: 이 글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부의 사회적 재분배에 기여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동일한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공제 후의 총액이 같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한다.

27. [출제의도] 표제와 부제 파악하기

부의 무상 이전 방법인 상속과 증여의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1문단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③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공평한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도 함께 드러난다.  
⑤ 상속세와 증여세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28.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2문단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이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증여세 납부 의무자의 우선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내용은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상속은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니, 상속세는 사망 후에 부과된다. ③ 2문단에 상속과 증여 모두 재산을 받는 이가 세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니 세율이 높게 적용되었다는 것은 공제 후 남은 금액이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⑤ 1문단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세습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니, 예금과 토지를 구별할 필요 없이 그 둘을 합친 총액에 대해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2문단 끝에서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고 했으니 상속 1순위에 따라 직계비속인 태아와 아내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③ 4문단에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니, 5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④ 임신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존속인 홀어머니와 아내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⑤ 5문단에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고 2

세금을 정한다고 했으니, 현재의 시세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30. [출제의도] 사전 뜻풀이의 적절성 파악하기

㉔의 '대비'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이다.

[31~33] 고전시가

<출전> 이지, 「가마귀 겹다 흥고~」 / 박팽년, 「가마귀 눈비 마즈~」 / 이규보, 「여뀌꽃과 백로(蓼花白鷺)」

개관: 이지의 「가마귀 겹다 흥고~」에서 작가는 까마귀와 백로를 대조하여 고려 유신으로 조선 개국에 참여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고려 유신을 비난하고 있다.

박팽년의 「가마귀 눈비 마즈~」에서 작가는 밤에도 빛을 잃지 않는 야광 명월에 빗대어 단종에 대한 자신의 충절이 변함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규보의 「여뀌꽃과 백로」에서 작가는 '선비의 표상'이라는 백로의 기존 이미지를 깨뜨리고 백로를 청렴을 가장한 탐욕스런 사대부로 그리고 있다. 아울러 백로의 본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표현 방식의 특징 파악하기

(가)의 중장, (나)의 중장과 중장은 모두 설의적인 표현으로 종결하여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㉔ (다)의 마지막 구절에서 어순을 도치하여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도치를 찾을 수 없다.

㉕ (나)의 '회는 듯 검노미라'에서 색채어를 활용하여 까마귀가 회어지는 듯하다가 다시 검어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나, (다)에서는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㉖ (가)와 (나) 모두 평시조로 4음보의 율격을 통해 안정된 리듬감을 보이고 있다.

㉗ 감정 이입은 (나), (다)에서 찾을 수 없다.

32.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이해하기

㉘는 눈비를 맞아 회어지는 듯하다가 다시 검어지는 모습을 보이므로, '겹다'는 본모습을 숨길 수 없는 부정적인 존재이다. 이를 <보기>와 관련지어 이해하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세조와 그를 따르는 무리, 권력을 탐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㉙ ㉚ 화자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㉙을 옹호하면서 오히려 ㉚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보기>와 관련지어 이해하면, ㉙은 고려 유신으로 조선 개국에 참여한 작가가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소재, ㉚은 길으로 고고한 척하며 작가를 조롱하는 고려 유신들을 가리키는 소재이다.

33.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D]에서 '사람들'은 백로의 모습에 대해 '기심을 잊고 서 있다'고 하여 백로를 청렴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물고기와 새우'를 탐하는 백로의 탐욕적인 모습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오답풀이] ㉑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고 싶은 백로는 사람 때문에 놀라 도망가게 된다.

㉒ 백로는 사람들을 피해 여뀌꽃 핀 언덕으로 가게 된다.

㉓ 백로는 물고기와 새우를 먹으려고 가랑비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㉔ '기심을 잊고 서 있다'는 말을 보면, 사람들이 백로의 탐욕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36] 현대소설

<출전> 문순태, 「말하는 돌」

개관: 이 작품은 한국전쟁 중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恨)을 풀어주려는 '나'의 이야기를 그리

고 있다. 복수를 위해 귀향한 '나'는 묘지 이장(移葬)에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나'의 행동은 이념과 계급을 초월했던 아버지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작품은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화해를 통해 인간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4.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A]는 아버지가 마을 청년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으로, '쇠죽을 끓이고~ 끓고 나갔다.', '아버지는 발부리에~ 발버둥치고 울부짖었다.' 등에서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인물 간의 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건의 긴박감이 고조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㉑ [A]에서 사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물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㉒ [A]에는 과거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㉓ '가족을 잃은~힘이 꺾 났었다', '개 끌 듯 끌고 나갔다.' 등의 표현에서 서술자의 주관이 드러난다.

㉔ 인물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35.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나'는 아버지가 끌려가는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예견한 것이지, 아버지가 부면장내 부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㉑ 배불리 먹고 잘 잔 후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는 진술을 통해, 생리적 욕구가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앞설 만큼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㉒ 가난한 형편이지만 건강한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 행복하다는 서술에서, 인물의 소박하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느낄 수 있다.

㉓ '살림이 작살났다'는 표현을 통해 '도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장돌식'이 그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㉔ '나'가 돌멩이를 던지는 행동과 맑아지는 달빛의 풍경을 통해 아버지의 누명이 풀린 것을 알게 된 '나'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도, '만춘이'는 여전히 타인과 공모한 사실을 밝히려 월곡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 그리고 '나'가 마을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㉑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을 해치는 '만춘이'의 잔인한 행동을 통해 인간성이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㉒ '대창을 깎아들고~젊은 사람들'의 구절을 통해, 북에 협조한 젊은 사람들이 부면장내 부자를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 가족을~뺏겨서 세웠다.'에서 '부면장내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㉓ '까치산 계곡에서~있을 뿐이었다.'는 구절을 통해, '월곡리 사람들'이 고통을 느꼈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㉔ '붉은 별을 붙인 사람들'은 인민군을 의미하고 푸른 재복을 입은 '도련님'은 국군을 의미하므로, 한국전쟁의 전선이 오르내렸음을 알 수 있다.

[37~39] 고전소설

<출전> 신광환, 「하생기우전」

개관: 이 작품은 조선 초기에 지어진 한문소설로 『기재기』에 실려 있다. '하생의 기이한 만남'이라는 제목처럼 주인공 하생이 죽은 여인을 우연히 만나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전기적 성격이 강하다. 두 주인공이 산 자와 죽은 자, 그리고 집안 차이라는 두 번의 혼사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마침내 결혼에 이르

는 과정이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다.

37.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작중 상황 및 사건에 대해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㉑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㉒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만, 그 구도를 선과 악의 대립 구도로는 볼 수 없다.

㉓ 시간적 배경 또는 공간적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㉔ 두 편의 삽입시를 통해 인물들의 현재 심정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것이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38. [출제의도] 인물의 상황 이해하기

시중은 무덤에서 자신의 딸(여인)이 살아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를 집으로 옮긴다. 이 과정에서 의원을 부를 겨를이 없다고 서술했지만, '혼비백산(魂飛魄散)'의 의미처럼 혼백(넋)이 날아가고 흩어질 정도로 놀란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㉑ '여인'은 '하생'과의 만남을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정해진 인연'이라는 뜻을 가진 '천생연분(天生緣分)'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㉒ '여인'은 '하생'에게 자신의 처지 및 환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말해준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이라는 뜻을 가진 '자초지종(自初至終)'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㉓ '하생'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시중'은 이야기를 듣고서 '부끄러운 빛'을 띠기도 했지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며 믿기 힘들어 한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반쯤은 믿고 반쯤은 의심한다'는 뜻을 지닌 '반신반의(半信半疑)'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㉔ '하생'의 시를 읽은 '여인'은 '몸이 아프다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황 '음식을 전혀 먹지 않음'이라는 뜻을 지닌 '식음전폐(食飲全廢)'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시중이 하생에게 잔치를 베푼 것은 여인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다. 하지만 잔치 이후에 시중이 둘의 혼인을 반대하는 두 번째 시련이 발생하므로, 두 번째 시련을 극복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답풀이] ㉒ 죽은 여인과는 혼인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첫 번째 시련으로 볼 수 있다.

㉓ 금척으로 인해 하생은 여인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결국 여인이 환생할 수 있었다.

㉔ 여인의 아버지인 시중이 집안 차이를 이유로 혼인을 반대하므로, 두 번째 시련으로 볼 수 있다.

[40~42] 현대시

<출전> 박목월, 「만술 아버의 축문」 / 이정록, 「의자」

개관: 「만술 아버의 축문」은 가난한 만술 아버가 아버지 제사 때 소금에 밥밖에 차려놓지 못한 한과 애틋한 정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의자」는 말 건네는 형식과 일상적 소재에 대한 상징적 의미 부여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40. [출제의도] 표현상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1연에서 만술 아버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고, 2연은 누군가가 이를 보고 만술 아버지에게 말을 건넨다. (나)는 어머니가 큰애에게 말을 건넨다. 이처럼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체의식을 심화한다.

[오답풀이] ㉒ (가), (나) 모두 화자의 시선이 이동

하지 않았다.

- ③ (가), (나) 모두 비판적 현실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지 않았다.
- ⑤ (가)는 ‘아베’, ‘놀러’, ‘가이소’ 등을 반복하고, (나)는 ‘의자’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있으나, 그것이 화자 자신의 부정적 처지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41. [출제의도] 시어와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만술 아버지’가 ‘소금에 밥’([A])을 차려 아버지 제사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에 망령도 응감하여 ‘밤이슬’([B])이 오는 것이다. ‘밤이슬’은 이 응감의 증거가 되는 자연물이다.

- [오답풀이] ① ‘저승길’을 가는 주체는 ‘만술 아버지’의 아버지이다.  
 ② ‘망령’이 응하여 감동하는 이유는 ‘만술 아버지’의 정성 때문이다.  
 ③ ‘보릿고개’는 저승에서 겪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엄침다’고 한 것은 ‘간고등어 한 손’을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만술 아버지’의 정성 때문이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적용하기

어머니는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것이 별 게 아니라고 한다. 세상살이의 이치는 편안하게 설 수 있는 공간(‘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에 몸과 마음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의자’를 내놓는 것과 같다. 즉,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위안이자 의지가 되는 ‘의자’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이치를 전달한다. ‘의자’가 ‘그늘 좋고 풍경 좋은’ 곳에 놓여야 가족끼리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치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 [오답풀이] ① 2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3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의자’는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것, 삶에 대한 위로와 위안이 되는 존재를 의미한다.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위로를 받고 의지했다는 것이다.  
 ④ 4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45] 회곡

<출전> 김인경, 「염쟁이 유씨」

개관: 이 작품은 죽음이라는 소재를 통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두렵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풀어 가며, 살아 있는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모습을 비판하며 풍자하고 있다. 염쟁이 유씨는 염을 염으로 삼고 살아온 집안에서 태어났다. 유씨는 사연이 있는 여러 죽음들을 접하다 보니,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 그러던 그가 일생의 마지막 염을 하기로 결심하고, 몇 해 전 자신을 취재하러 왔던 기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유씨는 기자에게 염의 과정을 보여주며, 그 절차와 의미를 설명하고, 염을 하며 자신이 겪은 여러 사연들을 이야기해 준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지문은 유씨와 장 이사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여 서로 갈등하는 대목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유씨와 장 이사 간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다.

- [오답풀이] ④ 지문의 마지막에 “백 석이요.”, “천 석이요.”, “만 석이요.”라며 관객들이 따라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을 보면, 대사를 활용하여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장사치’(장사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라는 억지스러운 이름을 설정하였고, ‘장 이사’라는 직책을 통해 ‘장사치’가 장사(사업)를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위적(꾸밈다는 것이 두드러지는)으로 이름을 부여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이런 미친 놈! 와서 뭐라든가? 뻔하지. 장의 사업이

어떻게 저렇게~’와 같은 대사를 보면, 유씨는 장 이사를 만나기 전부터 그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전국적인 장의 체인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동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장 이사이다.  
 ② 장 이사는 한국병원 사무장인 유치원 동창 병복을 통해 큰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이미 큰돈을 번 것은 아니다.  
 ③ ‘이 일만큼 보람되고 신성한 직업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 카는데 거기 아닌기라요.’라는 장 이사의 대사를 보면,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말함을 알 수 있다.  
 ④ ‘장의 사업이 어떻게 저렇게 되도 않는 소리나 지껄였겠지.’, ‘죽음을 돈으로 흥정하는 것들은 사람도 아녀!’와 같은 대사를 보면, 유씨는 전국적인 장의 체인망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심하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분석하기

[D]에서 유씨가 설치물에서 나온 후에 연기하는 대목을 보면, ‘병풍’과 ‘시신 인형’과 같은 소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에 소품을 설치한 상태에서 배우가 연기를 해야 한다.

- [오답풀이] ① <보기>를 보면, 일인 다역을 할 때 소품을 활용하여 배역이 바뀐다는 사실을 관객들이 알 수 있다. [A]에서 ‘유씨가 되어’의 지시문을 보면, 유씨가 장 이사로 변할 때는 설치물 뒤에서 외투(소품)를 입는다. 또한 [B]의 지시문을 보면, 장 이사가 유씨로 변할 때는 설치물 뒤에서 외투를 벗는다. 따라서 유씨는 외투를 벗고, 장 이사는 외투를 입고 연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외투를 입고 벗는 행동은 [C]와 [D]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됨을 짐작할 수 있다.  
 ② [A]에서 명함을 건네준다는 부분을 보면, 장 이사가 관객이 있는 [5]에서 연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B]의 지시문을 보면, 장 이사가 설치물의 한쪽으로 들어가면, 유씨가 설치물의 다른 쪽으로 나온다. 따라서 장 이사가 [3]으로 퇴장하면, 유씨가 반대편인 [4]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④ [C]의 지시문을 보면, 설치물 뒤쪽을 보며 ‘유 사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한참 찾았습니디.’와 같이 대사를 하고, ‘와 이리십니까? 내가 생선도 아이고... 똥똥! 아이고 짜겨워라! 그만 좀 하소. 가면 될 거 아니가!’와 같이 대사를 한다. 이는 관객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2]에서 장 이사가 유씨를 만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